



BRIEF

발행인 | 김영진 편집위원 | 류유선·이유라 발행일 | 2023. 7. 31.

대전 자살률 광역시 중 여성 가장 높고, 남성 두 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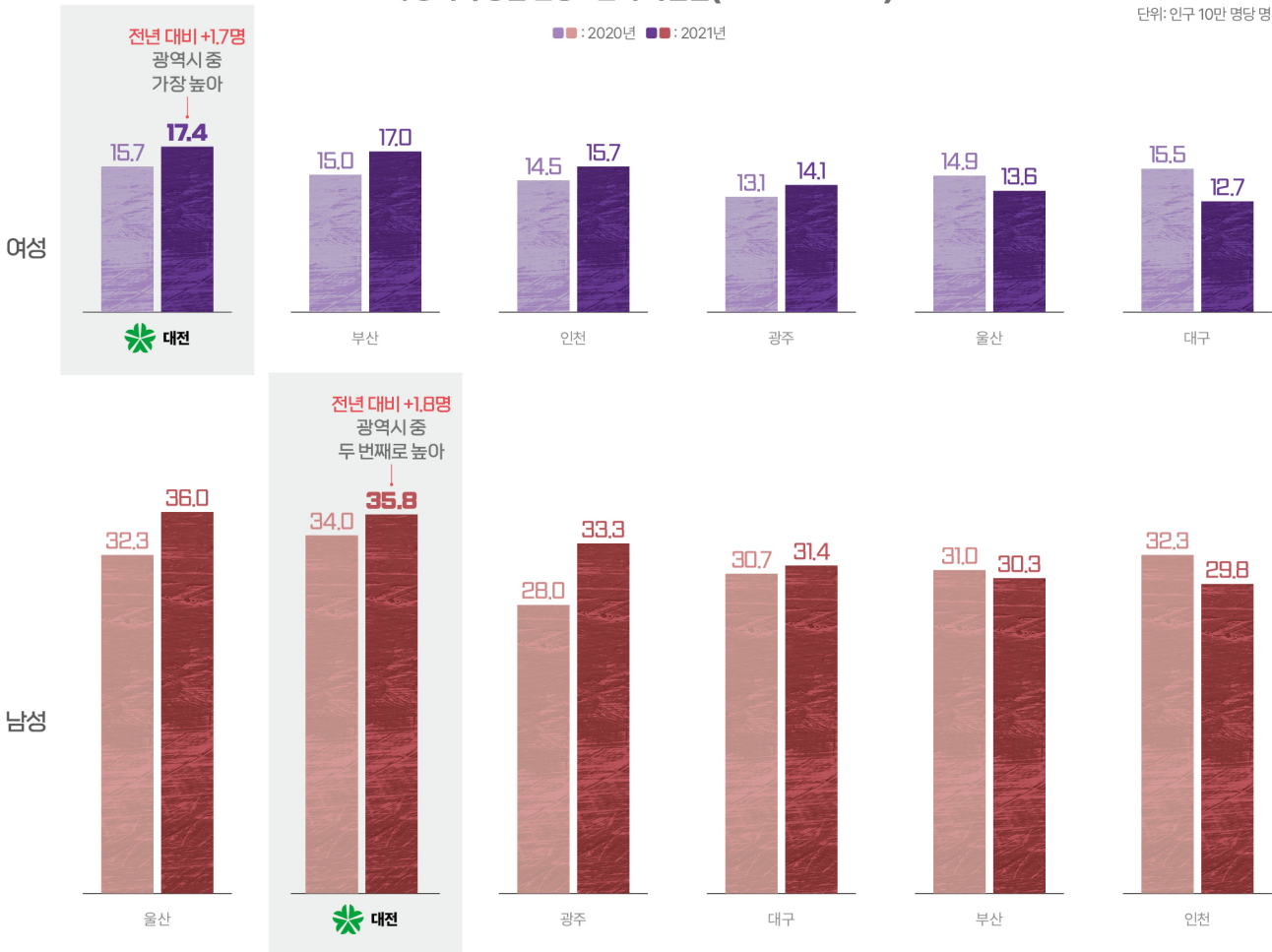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만3천352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26.0명이다.
대전은 전국 평균보다 3.3명이 많은 29.3명으로 나타났다.¹⁾ 대전의 20-30대 사망자 중 자살자 비율(20대 60.0%, 30대 45.3%)은 전년과 비교해 줄었지만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다. 10대, 40대와 50대 사망자 중 자살자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다. 사망한 10대 가운데 56.0%, 40대의 25.2%, 50대의 13.1%를 차지한다.

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자 수 많아져

2021년 대전의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6.5명으로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자살률은 2020년 15.7명에서 전년 대비 1.7명 증가한 17.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남성의 자살률은 울산이 36.0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대전(35.8명, 전년 대비 +1.8명)이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다.

6대 광역시 성별 연령표준화 자살률(2020 vs 2021)²⁾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1) 해당 연도의 성별·연령별 연앙인구를 사용한 자살률로 연령표준화 자살률 수치와 상이함

2) 연령표준화 자살률이란 지역별 비교 시 인구구조가 다른 집단 간의 사망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연령구조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사망률로 비교했으며, 표준인구는 2005년 주민등록 연령별 연앙인구를 사용하여 연령구조의 차이를 보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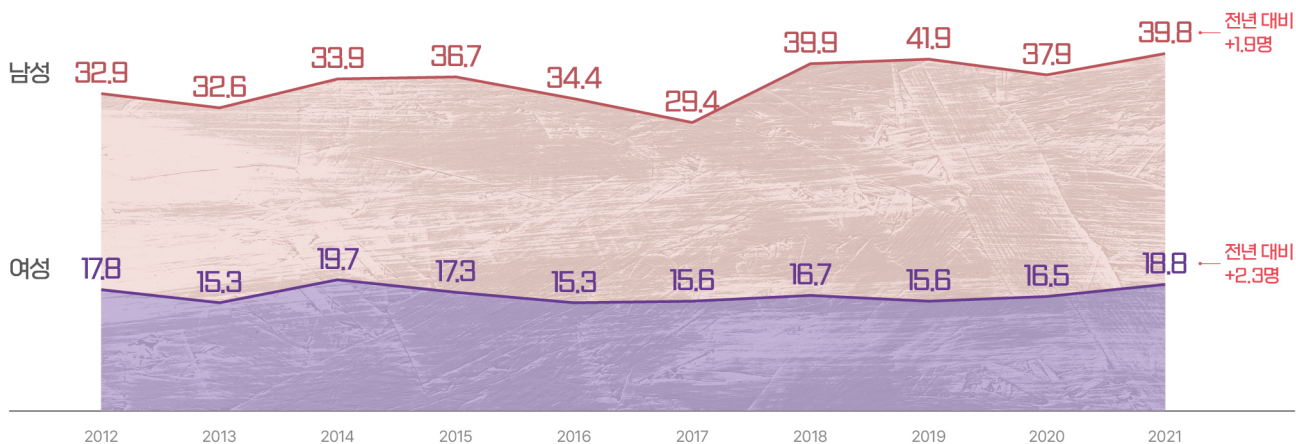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보건복지부, 『2023 자살예방백서』

대전 극단적 선택을 한 사망자 전년 대비 여성 2.3명↑, 남성 1.9명↑

대전 성별 자살률(2012-2021)³⁾

대전 여성의 자살률은 2012년 17.8명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3명 증가한 18.8명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자살률은 2017년 29.4명으로 감소 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2019년(41.9명)에는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였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9명 증가한 39.8명으로 나타났다.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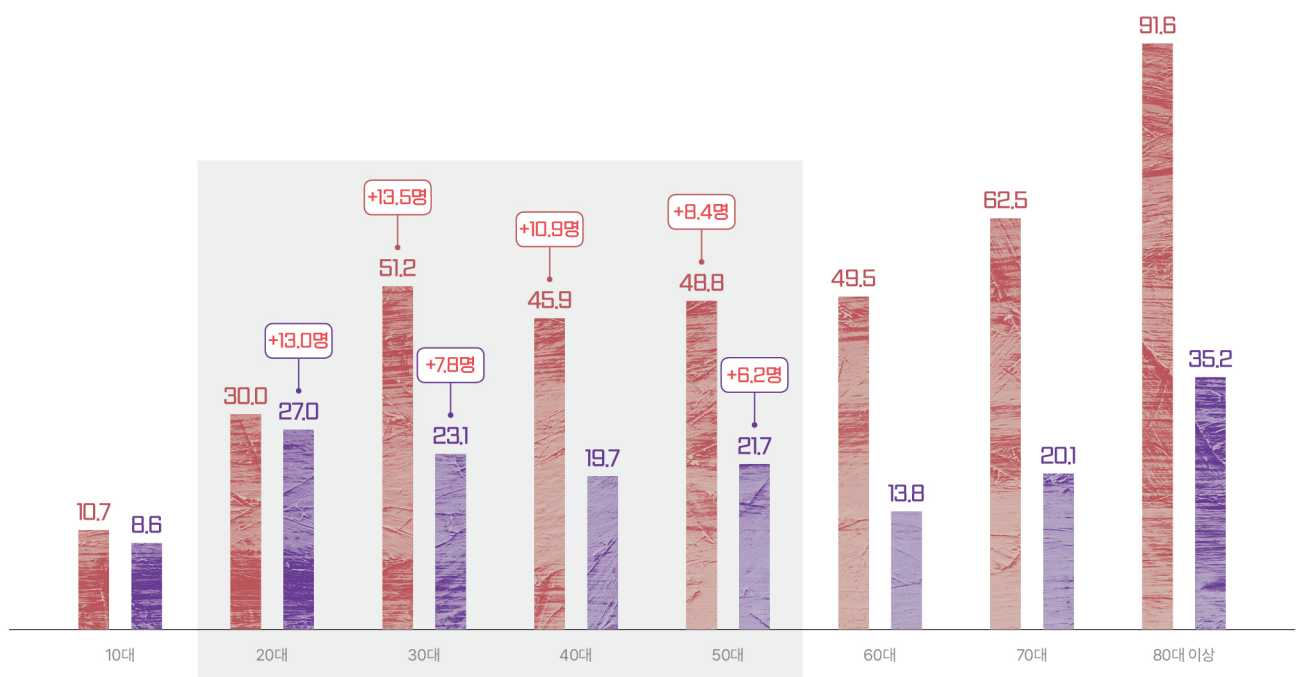
스스로 목숨을 끊는 2030과 4050 늘어나

대전 연령대별 자살률(2021)³⁾

남녀 모두 80대 이상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 다음으로 여성은 20대(27.0명), 30대(23.1명), 50대(21.7명), 70대(20.1명), 40대(19.7명), 60대(13.8명), 10대(8.6명) 순이다. 남성은 70대(62.5명), 30대(51.2명), 60대(49.5명), 50대(48.8명), 40대(45.9명), 20대(30.0명), 10대(10.7명) 순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에 비해 20대 여성(+13.0명)과 30대 남성(+13.5명)의 자살률이 크게 늘었고, 40-50대 남성(40대 +10.9명, 50대 +8.4명)의 증가세도 두드러진다.

■ : 남성 ■ : 여성 □ : '12년 대비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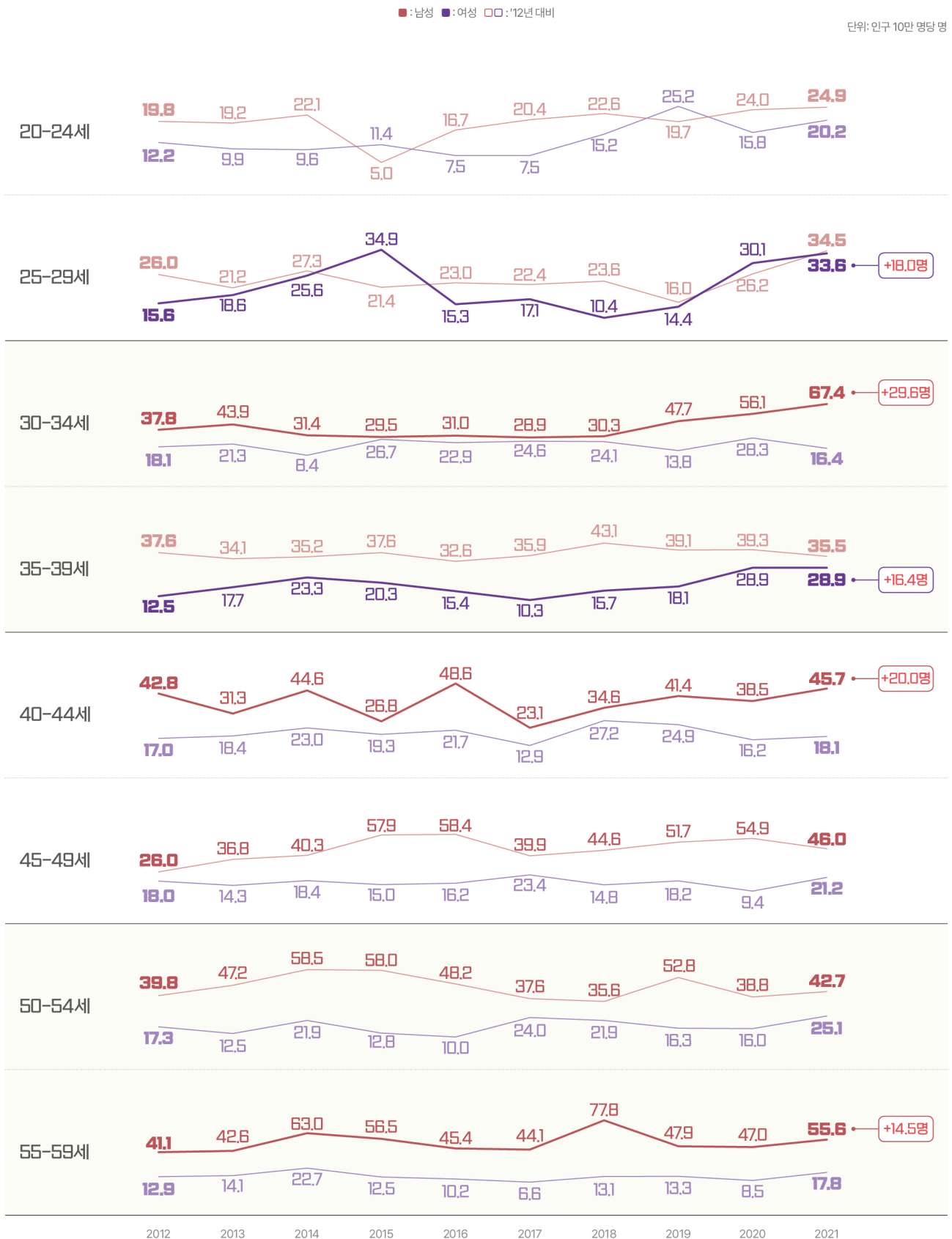


3) 집단 간 비교가 아닐 경우 해당 연도의 성별·연령별 연앙인구를 사용하여 산출함. 앞서 제시한 연령표준화 자살률과 상이함
· 자살률: (성별·연령별 자살자 수/성별·연령별 해당 연도 연앙인구)×100,000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주민등록인구현황』, 보건복지부, 『2023 자살예방백서』

대전 20~50대 5세별 자살률(2012~2021)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 20대부터 50대까지의 5세별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30~34세 남성 자살률은 2012년 대비 29.6명이 늘어나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이어서 40~44세 남성(+20.0명), 25~29세 여성(+18.0명), 35~39세 여성(+16.4명), 55~59세 남성(+14.5명) 순으로 오름세가 가파르다.



- 집단 간 비교가 아닐 경우 해당 연도의 성별·연령별 연앙인구를 사용하여 산출함. 앞서 제시한 연령표준화 자살률과 상이함
- 자살률: (성별·연령별 자살자 수/성별·연령별 해당 연도 연앙인구)×100,000
-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주민등록인구현황』; 보건복지부, 『2023 자살예방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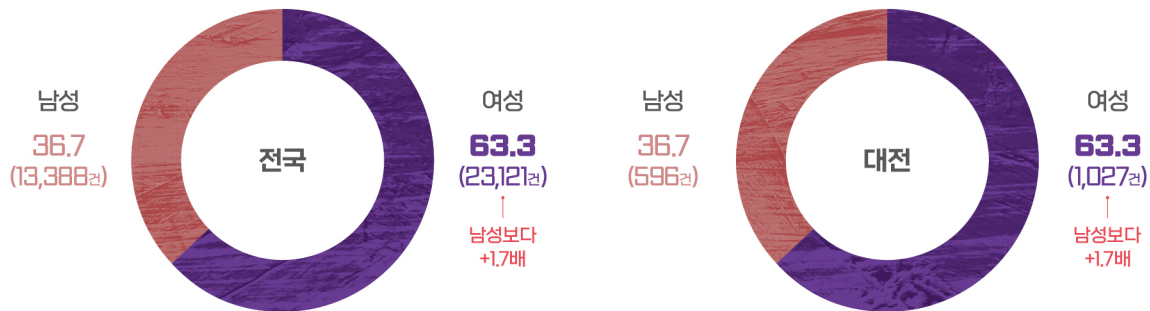
자살 시도로 응급실 찾는 환자, 여성이 남성보다 많고 10대 증가율 가장 커

-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은 전국의 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해 접수한 환자의 진료 정보임.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전국의 지역응급의료센터급 이상 165개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당해 연도에 실시간으로 전송된 정보를 활용함. 대전의 경우 응급의료기관 5개소에 대한 현황자료임
- 지역별 자료는 응급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이며, 응급진료를 받은 환자의 거주지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
- 2021년 대전지역 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 5개소에 내원한 자해/자살 환자는 1,623명으로 이 중 대전에 거주하는 환자는 1,144명(70.5%)으로 나타남
- 응급실 진료결과 '치료대상이 되지 않는 DOA(도착 전 사망한 환자)'는 제외
- 4)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1년 대전 자살자 성별 비중 남자 67.8%, 여자 32.2%로 나타남
- 출처: 중앙응급의료센터, 『2021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통계연보』; 보건복지부, 『2023 자살예방백서』

전국 및 대전 성별 자해·자살 시도 현황(2021)

일반적으로 자살자 중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데⁴⁾, 자살 시도자 응급실 내원 통계는 이와 정반대로 나타난다. 2021년 대전 응급실로 내원한 자해·자살 시도 건수는 여성 1,027건, 남성 596건으로 여성(63.3%)이 남성(36.7%)보다 1.7배 많다. 전국도 여성 23,121건, 남성 13,388건으로 여성(63.3%)이 남성(36.7%)과 비교해 약 1.7배 많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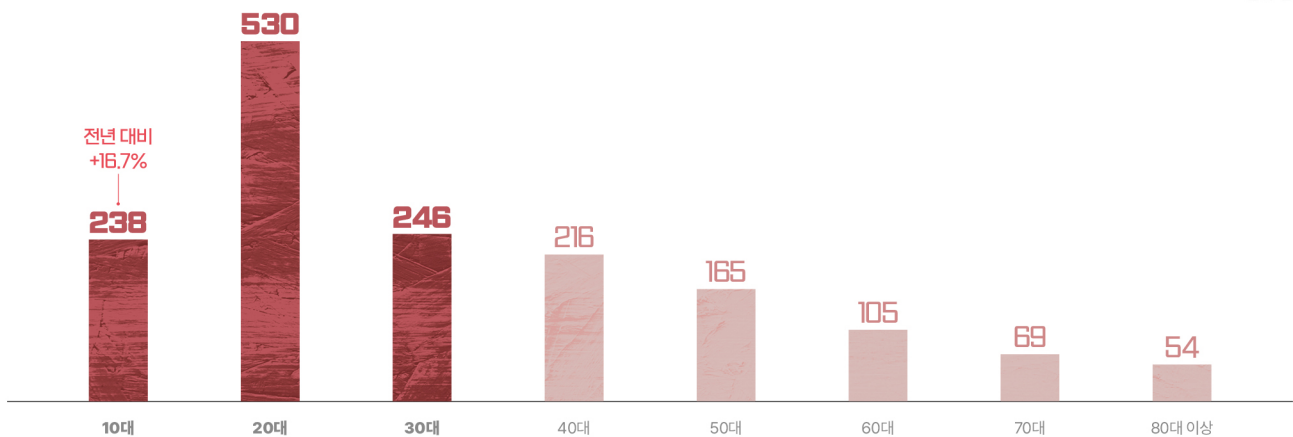


대전 연령대별 자해·자살 시도 현황(2021)

대전의 2021년 연령대별 자해·자살 시도 건수를 보면, 20대가 전년 대비 38건이 늘어난 530건으로 가장 많으며, 전체 시도 건수의 32.7%를 차지한다. 뒤이어 30대 246건(15.2%), 10대 238건(14.7%), 40대 216건(13.3%), 50대 165건(10.2%), 60대 105건(6.5%), 70대 69건(4.3%), 80대 이상 54건(3.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해·자살 시도자 중 39세 이하가 63%를 차지하고, 10대의 자살 시도자 수가 전년 대비 급증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연령대별 자해·자살 건수

단위: 건



자해·자살 건수의 연령대별 비율

단위: %

